

겨울철 재난 상황 대응 계획 수립

전주시, 재난상황실 가동 · 선제적 상황관리 통한 상황관리체계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구축

전주시는 한파 및 대설 등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시민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상예보에 따른 국지성 적설 및 결빙 예상시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편성해 실제 '도로의 강설 현황 파악,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등 올해 겨울철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17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명과 시설물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각 담당 부서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1~5단계) 대응계획에 따라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CCTV 76대 등을 연계해 실시간 위험 기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또 발생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유관기관 등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구간

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들의 출근시간 및 버스운행 개시 전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이면도로 지정장소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단독주택 9,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노인세대에도 이불과 방한용품 등의 난방

용품을 지원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대비한 만큼 빈틈 없는 대설·한파 대응계획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겨울철 강설·한파 대비 자동차 월동장비 체인을 확보해 강설시 자동차에 장착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설 시 내 집 앞 눈 치우기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동파상황실 운영 등 예방 · 복구 만전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황실장으로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려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건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인력 및 교체공사

시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온 급강하(-7℃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과거 동파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세대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을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오는 30일부터 동파 예방요령 안내 전단지 30,000매와 보

은용 비닐덮개 31,000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검침원 등을 통해 배부·설치할 계획이다.

장병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량기 함 내 헛어나나 에어캡 등을 채워 보온하고,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거나 보온을 하더라도 동파 위험이 있을 시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놓고 수돗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달라"며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한 교체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비화재경보 개선 위한 Clean-감지기 서비스

전주완산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 진행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Clean - 감(감지기를) 지(지키는) 기기(기)' 서비스를 17일 진행했다.

이번 시책 배경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완산구·임실군' 대상 올해(1~10월) 자동화재초보설비 등 비화재경보로 인한 출동은 346건으로 주요 원인은 습기가 93건(26.9%), 먼지분진이 44건(12.7%) 등으로 나타나 주요 비화재경보 원인인 먼지와 습기를 제거해 비화재경보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완산소방서는 평화동에 위치한 성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실내 설치된 감지기의 먼지와 습기를 제거하는 Clean 서비스와 실내 냉방·난방·적응성 여부 등의 환경분석(Check)을 진행했다. 이날 관계자 대상으로 감지기 지속



적 기본관리 교육과 비화재경보 시 대응요령 등의 안전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해 관계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전주완산소방서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비화재경보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동일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화재경보 오동작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고층건축물 7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전주덕진소방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사항 등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관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주상복합, 아파트 등) 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계획(16일부터 23일까지)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고층건축물 합동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고층건축물에 대해 전주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도시가스,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점검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계획서·자체점검 적정 여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건축법상 용도변경, 건축물 마감 재료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고층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수영장에 수소 연료전지 가동

전주시설공단, 친환경 발전설비로 연 9.3% 공공요금 절감 기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친환경 발전설비인 수소 연료전지(fuel cell)를 도입하며 완산수영장에 40kW 용량의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수소 연료전지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자체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공요금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기관(heat engine)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또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발전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과 물로 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 실용적이다.

공단은 수소 연료전지 가동으로 연간 9.3%의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정책에 부응하기



전주시설공단은 친환경 발전설비인 수소 연료전지를 도입하며 완산수영장에 40kW 용량의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해 수소 연료전지 도입을 추진했다.

공단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이며, 국비와 시비 등 총 9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친환경 정책을 비롯한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분	'21. 10월말	'22. 10월말	증감(%)
발생(건)	437	364	-73(16.7% ↓)
사망(명)	11	11	0(0.0%)
부상(명)	699	565	-133(-19.2% ↓)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도내 음주 교통사고 현황('22년 미확정 잠정 통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집중단속' 추진

전북경찰청, 내년 1월 31일까지 지속 단속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김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번 특별집중단속을 통해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력한 특별집중단속을 17일 알렸다.

이번 음주단속은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유혹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가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 홍보의 일환으로 단속 첫 날인 18일 도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음주 단속 활동으로, 음주사고는 전년 대비 16.7%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전년과 같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사고 건수 감소에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월드컵 행사와 연말연시 지인들의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